

환경보호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밀봉제(Cap Seal) 사용 폐지 계획

방콕사무소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 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용기 밀봉제(Cap Seal)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Cap Seal은 플라스틱 용기 뚜껑의 밀봉제로서 폴리염화비닐인 PVC를 주원료로 하는데, 환경오염관리부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매년 약 44억 병의 생수가 생산되고 이중 60% 정도가 뚜껑에 Cap Seal이 씌워져 있다고 한다.
- 이는 물의 위생이나 청결상태와는 관련 없이, 단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한해 520톤이라는 많은 양이 쓰레기로 배출되며, 비닐처럼 매우 얇아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즉, 불필요한 용도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 태국 생수 제조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된 Cap Seal

출처 : www.nationmultimedia.com

태국 정부의 환경보호 대책

- 태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태국 남서부 타이만 일대에서 1km에 달하는 해상 '쓰레기섬'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애플·코카콜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역시 이에 동참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식품 기업 역시 태국의 이러한 규제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사후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국 남서부 타이만 해상에서 발견된 거대 쓰레기섬

출처 : [시암해양복원재단](http://siamhaeyangbukwon.co.kr)
(www.yonhapnews.co.kr)